

달마도 100여 점을 한눈에 보는 책



깨달음의 아이콘 달마에 빠지다 김나미 지음 햇빛비 출판사 | 1만6000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는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선종의 공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달마는 선종 초조로 송산 소림사를 장강한 전설적인 인물이다. 달마는 인도 남천축국 국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석가모니처럼 왕위를 버리고 출가했다. 일반인들에게 달마가 유명한 것은 선종사적 의미 외에도 ‘달마도’의 영향도 크다. 달마도는 그림에서 나온다는 불가사의한 힘으로 인해 여러 가지 효험·기적들이 이뤄진다고 소문이 났다. 종교 전문가 김나미 박사는 최근 <깨달음의 아이콘 달마에 빠지다>를 펴냈다. 책은 저자가 1992년부터 <해인>지에 ‘달마를 찾아서’를 타이틀로 5년간 연재했던 원고를 모은 것이다. 저자는 연재를 하는 동안 전국 방방곡곡의 절과 암자를 다니며 달마도에 관한 자료와 글을 수집해 하나로 모아 <그림으로 만나는 달

마>를 펴내기도 했다. 저자는 “달마도는 선종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인가증명으로, 자신의 초상화를 제자에게 전해주는 일에서 비롯됐다”며 “흔히 그림으로 만나는 달마 스님은 그것을 그린 사람과 닮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까닭이 아닌가 싶다”고 말한다. 저자는 달마도가 갖는 의미를 >예배의 대상이 아닌 평등의 지향 >깨달음을 추구하는 달마 정신의 상징 >특별한 화법·기교에 얽매지 않고 여백이 많음 >고정관념을 깨는 파격의 지향 >반드시 선 수행자만이 그릴 수 있음을 들었다.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돼 있다. 1~6장에는 달마도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 달마에 관한 소개와 설화, 행적 등을 담았다. 7장에는 100여 점의 달마도를 수록했다. 책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1년 예산을 통틀어 사왔다는 김명국의 달마도에서부터, 단원 김홍도의 달마도, 걸레 스님 중광의 달마도, 영화 ‘아제아제바라아제’에 나왔던 범주 스님의 달마도 등을 볼 수 있다. 저자는 “각 그림에는 달마 스님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그림에 대한 설명에서는 기법보다 그 속에 담긴 정신을 중시했다”고 말한다.



김명국의 '달마도'

책은 어려운 용어나 사상을 피해 초심자나 일반인에게 술술 읽힌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행복하려면 ‘나’를 배워라

서광 스님, “‘진짜 나’를 알아야 진정 자유로워져” 마음공부 워크북 ‘나를 치유하는 마음기행’ 출간



“사람들은 자기계발을 위해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처럼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수영, 테니스, 피아노를 배우듯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돼야 합니다. 행복에도 학습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원히 젊고 매력적일 것 같은 자신이 어느 날 문득 초라한 모습으로 거울 앞에 비칠 때, 잘난 나에서 못한 나를 발견할 때, 누구나 자신의 존재감이 뿌리 채 흔들리는 초라한 현실의 나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 삶의 여정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지금껏 알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무척 낯설고 거리감이 느껴져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인간인가?” 라는 물음에 깊은 고민에 빠진다. 심리학 전문가인 서광 스님(사진)이 현실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나를 치유하는 마음기행>을 출간했다. 마음치유에 관한 대부분의 책들이 이론에만 치중하거나 실천법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지만, 책은 진아(眞我)를 만나 마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론과 실습을 병행시킨 워크북 형태로 구성됐다.

마음의 진실을 궁구하는 유식(唯識)은 반야사상과 더불어 대승불교의 핵심사상이다. ‘유식 30송’은 유식의 요지를 5년4구의 30개송으로 정리한 것으로 불교심리학, 불교심리치료의 정수를 담고 있다. 책은 본래 서광 스님이 집단상담에서 사람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만든 교재용 책이었지만, 일반 독자들도 누구나 쉽게 읽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은 3부로 나뉘어, 1부에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 진아 만나기 프로그램의 목적, 진아 만나기 프로그램이 강조하는 것, 주요기법, 프로그램의 구성 등의 이론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2부에서는 ‘유식30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개념과 유식 치유의 과정과 기법을 5단계로 풀었다. 이어 3부에는 진아 만나기 프로그램의 실습과정을 총 8회기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책은 시시때때로 ‘가짜인 나’가 빛나는 고통과 불행을 예방하고, 불안 우울 질투 미움 등의 마음을 극복해 사랑 연민 친절 공감 등의 마음으로 길러주는 안내서이다. **나를 치유하는 마음기행 | 서광 스님 | 불광출판사 | 1만2000원**



이은정 기자

자기계발에 시간투자하듯 행복에도 공들여야 올바른 지혜 나오려면 진실로 사유할 토대 필요 불안 등 극복하고 사랑·연민 길러주는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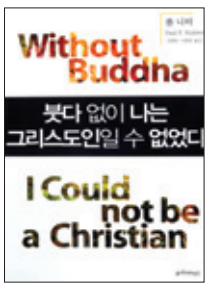
서광 스님은 “불교는 자기 자신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다. 올바른 지혜가 나오려면 진실로 사유할 수 있는 자료와 토대가 필요하다”며 “책은 ‘사유의 소재’로,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이뤄지는 말과 행동들에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마음 공부는 현대인에게 필수요소가 됐다. 서광 스님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종교심리학 석사와 자아초월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미국 보스턴 서운사 주지를 맡고 있다. 또 한국에서는 한국불교심리치료연구원 원장,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운영위원, 대학에서 불교심리학과 불교상담, 자아초월심리치료 관련, 워크숍, 집단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스님은 이미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유식30송>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등의 저서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다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왔다. 스님은 이번 책에서도 ‘유식30송’을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했다. 서광 스님은 “‘유식30송’은 심리치유적으로 해석했을 때, 불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며 “치유적 접근이 ‘유식30송’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학이 대중에게 유행하던 시대에는 사유가 철학으로 해석되기도 했고, 문학이 주류였던 시대에는 사유가 문학적으로 해석되기도 했다”며 “현대에는 사유가 영성이나 화두, 치유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방정일	운주사
5	솔솔에 더 깊숙이 찾아라 (42장경)	보경	조계종출판사
6	산승불회	유철주	불광출판사
7	대법처경	묘원	행복한숲
8	우화로 읽는 팔만대장경	진현중	컬처북스
9	스님의 흰족 가계	스지현	모멘트
10	공감인 (한국의 유아 백봉거사와 제자들)	최운초	비움과소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불교에서 찾은 그리스도교 해답”



붓다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폴 니터 지음 정경일·이창엽 옮김 클리마어만드 | 1만9000원

종교다원주의신학의 세계적 석학 폴 니터 교수의 저서 <붓다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Without Buddha I Could not be a Christian)>가 한글로 출간됐다. 몇 년 전 미국에서 발간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책은 니터 교수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가졌던 의문점을 불교를 통해 풀어가고 있다. 개인적 경험의 고백서인 셈이다. 서론인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인가?’에서 폴 니터 교수는 직설적으로 “이 책은 담고 있는 내용들과는 달리 다소 이기적인 책이다. 나는 주로 나 자신을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경험을 개인 안에 가두지 않고,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반에 대한 관심과 고민으로 확산시켜왔다. 불교를 접하면서도 개인 수행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그리스도교 영성과 통합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사회적 실천에 관심이 많은 폴 니터 교수

는 개인의 삶과 그리스도교 교회에서의 공동체적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불교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 책을 통해 풀어내고 있다. 책은 니터 교수가 그리스도교 전통에 속하면서 불교의 전통에서 깨쳐온 성찰을 7개의 장을 통해 비교·설명하고 있다. 각 장은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이 폴 니터 교수 자신과 그가 속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질문들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제시하고 있다. 폴 니터 교수는 오랜 세월 그리스도교의 영적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불교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특히 제5장 ‘그리스도 예수와 붓다 고타마’에서는 불교를 통해 예수의 신성을 깨달음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폴 니터 교수는 십자가의 범도 <범구경>에 나타난 “증오는 사랑으로만 없앨 수 있다”는 구절을 통해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었다. 니터 교수는 <범구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증오하기 보다는 가까이 죽을 수 있어야만 하는 사랑이라고 풀이한다.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이다. 니터 교수는 이처럼 불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깊은 통찰과 더 분명한 진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깊은 안도감으로 인식하게 한 사례들이 많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불교가 자신을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자 신학자로 만들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폴 니터 교수는 이 책에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나는 예수에게로 귀가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말처럼 <붓다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는 그리스도교적인 물음에 대한 불교의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불교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제시하는 것이다. 폴 니터 교수는 이를 서양의 종교학과 신학계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여러 종교 전통에 속하기’로 보고 있다.



폴 니터 美 유니온신학대 교수

폴 니터 교수는 “여러 종교전통에 속하기는 종교간 대화와 평화를 더 깊고 인격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런 성찰이 복합적인 종교적 정체성을 고민하는 한국의 종교인과 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무비 스님

方日文常洒悲淚苦哉苦哉既誓不還鄉即得從汝志我不敢望汝帝王祥卧水了蘭刻木但望汝如目連尊者度我解脫沉淪上登佛果如其未興幽愆有在切須體悉切須體悉

○ 圭峯密禪師頌

무비 스님 직지 강설 출판기념회

일시 2011. 10. 28(금) 14:00. | 장소 부산 금정산범사서법전 | 주최 무비 스님 제자 모임 (Tel. 051-508-3122)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선불교 최고의 교과서 「직지」

“직지의 원제목은 ‘백운화상초록보조직지심체요집’이다. 백운 화상이 부처님과 조시스님들이 바로 길러준 마음을 깨닫는 중요한 가르침을 가려 뽑은 이라는 제목에서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선불교 최고의 교과서이다. 무비 스님은 직지 강설을 통해 선불교의 핵심을 꿰뚫어 보여준다. 무비 스님이 강조하는 인불사상*은,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가르침이 곧 선불교의 핵심임을 천명하고 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알아 처리면 그대로 깨달은 존재, 사람이 부처님임을 알려주는 가르침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

* 불광출판사에서 펴낸 무비 스님 책들